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불교신자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행복을 느끼며 아주 즐겁게 공부하고 수행해왔는데, 요즘 스님들의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면면이 보이고(더러 인간말종도 있더라고요), 신도들도 더러 해괴한 사람이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혐오감이 느껴져서 예전처럼 진지하게 기도도 안 되고, 스님들의 설법을 즐겁고 감사하게 들을 수 없게 되면서, 불자라는 것에 회의감도 듭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존경스럽습니다. 딱히 개종할 만한 종교도 없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A 승재가의 그늘진 부분을 보니 불교발전이 어려울 것 속 많이 상하시죠? 1600년이란 한국불교역사 속에 승속이 함께 자자와 포살의 차원에서 정법구현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잘못된 행을 하는 승가나 재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선행보다 악행이 잘 보이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험수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에는 사(邪)보다 정(正)이 많습니다.

잘못된 행을 보면 '나는 저런 행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또 다른 스승으로 바라보세요. 또 우리 불자는 항상 자신의 행을 돌아보고 정진함이 참 불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유정법(無有定法)을 설하신 것과 같이 승속의 잘못된 행을 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교의(敎義)입니다.

나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행을 하는 스님과 신도들도 불성을 가진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상대를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스승·참도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들의 세속적인 면에 불교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상대 존경하는 마음이 참스승 참도반 만들어요

Q 고3 수험생입니다. 예전부터 진리와 깨달음, 수행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출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바로 출가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도 있고, 대학도 가야할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출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찰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어느 사찰이 좋을지, 스님이 되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고3 학생이니 무척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적성과 꿈, 환경 등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해가는 과정이죠. 지금 출가의 꿈을 밝히신 것도 지금 이 시기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대학생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와중에 항상 출가의 뜻을 품고 계셨다니 놀랍습니다. 출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색하고 계셨다니 더욱 놀랍습니다.

스님이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앙승가대나 동국대처럼 불교전문대학이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불교 공부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또한 여의치가 않다면 스님을 만나 수업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출가의 시기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본인이 마음의 준비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고, 부모님과도 상의해서 결정해야 수행정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불교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형태의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욕망의 극복이나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점은 수행을 통해 자기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에 있습니다.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이론에 밝다 하더라도 지식적 알음알이에 그친다면 문자놀음에 불과할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 이론과 수행의 일치가 이루어져 중생을 제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불교적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교 수행의 근본 지향점과 참된 의미가 있지요.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부처님 가피 속에 숨쉬고 치료해요

희망법당 탐방
부산의료원

시립부산병원 법당 선우도량은 효종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찾아가는 법회를 병동복도에서 봉행하고 있다.

2층 로비서 행려환자 위한 토요법회 '인기'
꾸준히 수행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삶

5월 29일 오후 1시 30분. 시립부산의료원 2층 '병동 복도'에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김춘희(59 · 법명 안락화)씨는 법회 시작 30분 전부터 휠체어를 탄 환자들을 일일이 맞이한다.

"보살님, 어서오이소. 잘 지냈으예~."

선우도량을 5년 동안 지켜온 김춘희씨의 환대에 환자들의 얼굴에 꽃이 핀다. 병실에서부터 혼자 휠체어를 밀고 온 환자들은 김보살과 부산경남포교사단 교정교화 애어팀원(팀장 박양식, 법명 무상)들을 발견하자 아들, 딸을 만난 것처럼 살갑게 인사를 나눈다.

시립부산의료원 내 법당 '선우도량' 주지 효종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주2회 찾아가는 법회, 하루 2번 예불을 열어 환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곳 환자들은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병마와 홀로 싸우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 독거노인 등 행려환자들이다.

복도자판기 앞에 불화를 내걸면 40여 평의 2층 로비가 순간 법당으로 탈바꿈한다. 오후 2시가 되자 1시간 전 15명 남짓이던 환자가 100명에 다다랐다. '병동 복도'에서 행려환자를 위한 토요법회를 봉행했다.

부산경남포교사단 자원봉사 금수팀 이종석(법명 고불) 포교사의 집전으로 <예불의식집>에 따라 <천수경>부터 예불, 관세음보살 정근, 발원문 봉독, <반야심경>, 사홍서원, 해탈주, 산회가 등을 차례로 이어갔다.

고령의 환자들은 의식집을 펴들고 어눌한 발음으로 더듬더듬 따라 읊어 내려갔다. 불경을 외는 순간, 이들은 병마의 고통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법회에만 집중하는 듯 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링거주사를 뽑고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도 없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해보였다. 앉은 채로 합장 반배하며 부처님께 귀의하는 환자들의 모습에 지켜보던 간병인들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효종 스님은 법문에서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 베풀고 회향할 수 있는 마음"이라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 몸 관리 잘하는 등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와 참선, 법문 등 꾸준히 수행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삶"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병원 문을 나선 후에도 인색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어떠한 일이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근심걱정을 덜어내 줄 것"이라고 설했다.

환자와 간병인들이 효종 스님의 법문에 심취해 있는 중에도 봉사자들의 시선은 오로지 환자들을 향해 있다. 합장을 할 여력도 남지 않은 어르신들의 두 손을 맞잡아 함께 합장해주는가 하면, 작은 헛기침 소리라도 나면 이내 곁으로 다가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핀다. 이들 봉사자들 덕분에 자칫 어수선해질 수 있을 법회가 편안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된다.

1시간 후 법회가 끝나자 봉사자들은 법회에 참석한 환자들이 각자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양말과 속옷, 간식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 속옷이나 생필품 등은 흔하지만 가난한 행려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반가운 선물이다. 이러한 선우도량 효종 스님과 김춘희 보살, 그리고 부산경남포교사단의 따뜻한 포교로, 매주 토요법회에 참석하던 한 행려환자는 퇴원 후 부산의 모 불교대학에 입학해 포교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도 했다.

김춘희 보살은 "법회 도중에도 환자들에게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면 정말 힘들지만, 직접 간병이나 목욕봉사를 통해 얻는 환희심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며 "항상 참회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다음 세상에 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싶다고 발원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를 훌쩍 넘어서고 토요법회를 위해 2층 로비로 옮겨갔던 탱화와 촛대, 목탁 등의 불기들도 지하 1층 선우도량 법당으로 모두 돌아왔다. 법당에서는 애어팀원들과 김 보살이 오늘의 법회에 쓰인 공양물의 지출결산과 가벼운 평가가 오갔다.

누군가는 병을 안고 병원을 찾아오며, 또 어떤 이는 병원에서 삶을 마감한다. 이곳은 부처님의 자비가 절실한 곳이다. 요즘 종합병원은 저마다 작은 법당을 마련해 환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병원장이 불자이거나 불교계 재단에서 설립한 병원일 경우에는 병원 내 법당에서 정기적으로 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오신날 등 특별한 날을 위한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병원 법당은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환자가 적고, 관리 인력이 부족해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선우도량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시립부산의료원 부루나 존자들은 한결같이 기도한다.

"선우도량을 찾아온 수많은 환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자로 거듭나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제1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 교육생 모집

현대를 살아 가고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 직장과 가정사이에서 갈등하고, 조화롭게 양립해 나가기 힘든 사회적 여건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출산률 저하와 이혼, 가족해체로 인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발생되는 사회의 부정적 제반문제를 최소화 하고 건강가정의 육성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지킴을 위해 상호존중과 균형있는 역할 분담 등 미래지향적인 일 · 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8시간, 가정복지 20시간, 상담학 13시간, 가족심리 치료통합 접근 20시간, 다문화 복지론 8시간,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 14시간, 상담실습 10시간 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전문상담 교육내용 -

1. 대 상 :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다문화가정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10년 6월 28일 ~ 8월 10일까지 (오전 10시 30분 ~ 15시)**
4.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3층 교육장 (TEL 02)810-5075)
5. 수 강 료 : 9만원 (당일 10만원)
6.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 후 전화신청. 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10년 6월 2일 ~ 6월 28일까지
9. 문 의 처 : 02)738-5586 / 02)735-0406
10.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 합니다.

※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 주 관 : 사단법인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 후 원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 (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 (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 (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 (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 (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5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